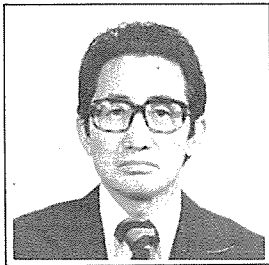


# 問題와 行動



朴 益 洙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長〉

사람은 이 地上에 태어나면서부터 問題와 부딪히게 되며 문제 속에서 문제와 싸우다 一生을 마치게 된다.

어머니 뱃 속에서 나오자마자 우선 새로운 環境에 적응하며 살아야하고 커가면서 家族의 一員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兄弟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幼稚園에 가고 學校를 다니면 學校와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로 더욱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있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있다. 社長이 되고, 長官이 되고, 大統領이 되었다고 문제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責任이 크면 클수록 부딪히는 문제는 더욱 크고 많고 어려워진다. 것처럼 문제는 크건 작건 항상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며 「人生은 苦行」이라는 말도 그래서 쉽게 긍정되어지는지도 모른다.

現在,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現在 科學技術時代에 살고있다. 로켓, 人工위성, 原子力, 컴퓨터 그리고 여러가지 새로운 原子기술,

合成기술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 製品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놀라운 尖端技術의 時代이다. 그래서 現代를 우주시대라고도 하고 원자력시대, 전자시대, 컴퓨터시대, 정보화시대 그리고 합성화학시대, 생명공학시대라고도 부른다. 이것이 다시 서로 組合되고 서로 연결되어 더욱 고도하고 다양한 기술을 만들며 우리의 生産技術과 家庭生活 그리고 社會環境과 國際관계를 크게 변모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증기동력이나 紡織技術을 주축으로 했던 時代나 電信電話, 電燈 등 전기를 주축으로 했던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現代는 이처럼 우리에게 고도하고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思考와 生活의 적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世代의 차이에서 혹은 生活環境의 차이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判斷 基準에 의해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판단기준의 혼돈 속에서 夫婦간이나 親子간의 생활철학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제도사이, 분야와 분야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와 알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 중에는 능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무력하게 회피해서는 아니됨은 물론,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변화에 따른 올바른 問題意識을 갖지 못하고 또 이것에 현명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智慧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社會의 疎外를 받아 「時代의 孤兒」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최근 10년간의 변화는 過去의 100년, 아니 그 보다 훨씬 긴 세월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그와같이 빠르고 현저하게 변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現實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思考와의 거리를 우리는 과연 어느정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거리에 있어서의 공백이 자신에 있어서 어떤 意味와 問題를 갖게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變化」는 언제나 새로운 「意味」를 나타내는 동시에 새로운 「問題」를 수반한다.

보다 다양한 변화는 보다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고, 보다 고도한 변화는 보다 심각하고 커다란 문제를 수반하고, 보다 급속한 변화는 그만큼 또 충격적인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하고 심각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을 처리하며 前進해 나갈 自己責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행동없는 問題意識에서는 결코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없다. 즉 문제의식은 행동을 통해

서만이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의식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잡고 행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식은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행동은 문제의식의 성취를 뜻해야 한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단합한다. 社會의 모든 단체적 행동도 모두 이러한 연유에서 생기는 것이며 科總도 그 대표적인 단체의 하나라 하겠다.

여러가지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현재 個人이나 團體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절규하고, 對話하고, 質問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온것은 사실이다. GNP對연구개발투자가 2%에 달했고 다시 5%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 新聞을 통해 많은 새로운 계획과 정책을 읽어 온바 있다. 제5차 과학기술개발5개년(82~86)계획 5조 4천4백억원, 기술드라이브政策을 위한 투자비 5천8백억원을 위시하여 2000년을 向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2000년대 세계10位圈進入을 위한 戰略과 課題, 2000년까지 核心研究人力4천명의 養成, 그리고 新技術개발지원공단의 설립, 基礎科學연구소의 신설등 과학기술정책의 정수를 모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記事에 우리들은 크게 고무되고 흥분하여 왔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國力은 물론 우리 모든 과학기술단체의 死活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나갈 때 또 우리의 과학기술제도 크게 활성화되어 갈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새해에는 우리 서로가 문제의 소재와 핵심을 바로 파악하여 보다 확실하고 알찬 성취를 위하여 보다 넓고 세밀한 대화의 활동이 있기를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